

‘2세건강 책임’ 특수유제품개발 앞장 산학협동연구 강화 식품선진화 박차

매일유업중앙연구소

I. 기술 연구소 현황

2세건강에 보람을 거는 기업이란 이념아래 지난 26년간 국내 유가공업계 선두그룹으로 꾸준히 정진하여 온 매일유업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중앙연구소는 매일유업 기술개발의 핵심부로서 연구원 전원이 끊임없는 노력과 국제적 감각을

키워오고 있다.

매일유업 중앙연구소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송탄쪽으로 불과 6km 거리인 평택군 진위면에 자리잡고 있다. 동연구소의 모태는 1970년 연구개발과로 출발하여, 그 후 1983년 생산기술부 제품개발과를 거쳐 각 공장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업무를 통합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1990년 10월에 정식 발족, 94년 3월

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로 승인받게 되어 현재는 제품개발과 산학협동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연구소 조직은 연구분야별로 총 5개 그룹으로,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박사 3명, 석사 9명, 학사 3명과 행정관리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연구, 유아식품 및 특수식품을 개발하는 제1그룹은 유아식품의 근본인 모유에 대한 끊임없는 과학적 연구 결과와 FAO/WHO,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바탕으로 유아식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내 최초 철원햅쌀과 삼척 우리밀을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매일 맥밀을 비롯하여, 지능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DHA)과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을 결합한 유아용 조제분유 매일맘마 D&A, 질환이나 특이체질로 고통받는 소수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특수조제분유 개발은 업계에선 단연 선두라 할 수 있다. 아기의 급성·만성설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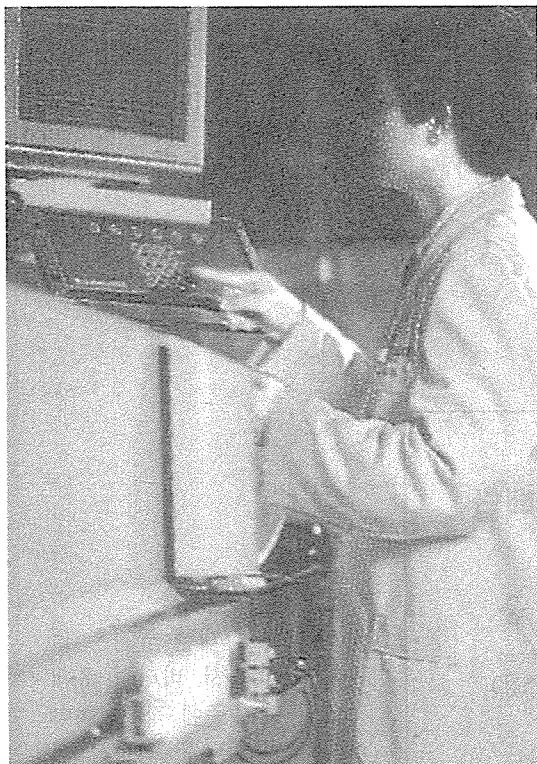
MF-1, 식품 알레르기예방 및 치료용 HA-21, 우유알레르기 특이체질 유아용 소이A, 미숙아를 위한 미숙아분유, 칼슘과 인의 대사조절을 위한 LP분유 등을 개발 시판중에 있다.

특히 급성설사용 특수영양식 매일 MF-1은 중국 상해소아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도 어린이 급성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9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국 의학계에서도 MF-1의 효능을 인정하기도 했다.

제2그룹은 청량음료, 유음료, 유가공식품 및 각종 디저트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이용, 각종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건강식품 개발이 활기를 띤에 따라,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고 비타민과 칼슘이 강화된 어린이 우유 또또가 탄생되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비타민C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저온살균주스 썬업 100을 개발하여 국내 주스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발효유제품을 개발하는 제3그룹은 인체 유익균인 비피더스 유산균 연구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지난 90년에는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와 비피더스유산균에 대한 효능을 연구, 발표해 관련 업계와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에도 한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팀과 중앙연구소가 공동





으로 1여년간의 연구 끝에 임상실험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25%까지 저하시키는 우수 유산균 배합에 성공해 곧 제품화할 계획이다.

1989년 9월 비피더스유산균으로 만든 떠먹는 요구르트 바이오거트는 비피더스요구르트의 실질적인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올 한해만 2백 %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인 드링크요구르트 비피더스요구르트는 중국, 일본, 한국의 의학계에 腸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제4그룹은 乳/油脂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실로서 지방과 물을 일체화시키는 에멀젼 기술은 국내 유제품 회사중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다. 크림, 버터, 아이스크림용 제품 및 커피크림 등 다양한 유지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선진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패션화 등 생활 여건에 맞는 고급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로 유아식품과 유아영양, 유아기 질환과 식이법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제5그룹 영양과학정보실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유아영양에 대한 제반내용을 상호교류하고 유아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방법을 고취시키고 있다. 각종 특수유아식품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을 소아과 의사와 상호교류함으로서 실질적이면서 꼭 필요한 유아용식품 및 특수분유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일유업 중앙연구소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매일유업이 세계 속의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는데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26년간 국내 유가공업체의 선두그룹으로 꾸준히 정진하여 온 매일유업의 숨은 저력, 중앙연구소. 매일유업 중앙연구소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매일유업 제공〉